ISSN 2733-6239(Print) ISSN 2733-6247(Online)
©Copyright 2021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https://doi.org/10.5659/JAIK.2021.37.11.67

주민참여형 ‘골목기록가’ 리빙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Development and Effect of Resident-Participated ‘Alley Recorder’ Living Lab Program

김 희 정* 유 해 연**
Kim, Heui-Jeong Yoo, Hae-Yeon

Abstract

Recently, through Living Lab operated by residents, there has been an active movement to solve and improve problems in urban regeneration area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lley Recorder Training Course" program for the operation of resident-participated Living Lab and analyze the educational growth process of participants. To this end, the "Alley Recorder Training Course" was developed, a systematic program for the operation of resident-participating Living Lab, conducted a four-month one-to-three-step program for residents, and examined the effect on residents who completed the Alley Recorder Training Cours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lley recorder training process increased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residents. Second, the alley recorder training proces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hange in residents' perception of village changes. Third, the Alley Recorder Training Course strengthened the ability of residents to make substantial changes in the village by participating in the recording living wrap.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developed an educational program that allows residents to participate in initiative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키워드 : 도시재생, 주민참여, 주민참여형 리빙랩, 골목기록가, 기록화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Resident-Participated Living Lab, Alley recorders, Recording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주민참여형 리빙랩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로 지목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민없이 혹은 대량 생산 메커니즘에 따라 일방향적인 개발하는 방식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의 만족감과 효과를 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리빙랩은 참여형 도시재생의 방법으로 ‘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과정’(Glass, 1979)이다. 이는 계획의 결정에 대한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일반 주민의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참여형 도시계획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수준(level)이 주요한 척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한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대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재생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8년 용산과 성북구의 시범사업을 공모 등, 2019년 3월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13곳의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 추가 15곳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사업지별로 3년간 총 10억 원을 마중물사업비로 지원하고, 시와 구의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추가 집중 지원하는 형태이다. 골목길은 지역공동체가 소통하고, 삶을 유지해나가는 주요한 물리적, 사회적 공간으로써, 중요성을 인식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인지되어, 기존의 재생수법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쉽고, 거주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하지 않은 관 주도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가이던스가 요구된다.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초기부터 기록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발전방향(vision)을 제안하고, 변화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지역의 경우, 멸실되는 유의미한 공간과 생활사, 역사문화 등의 기록화 사업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 또는 용역사가 선정되고, 이들은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기록화 사업을 하게 된다. 전문가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지만, 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비교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록화 초기단계에는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학박사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zenism@ssu.ac.kr)
본 연구는 2021년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NRF-2020R1A2C1006354
연구에 도움을 주신 양천구청, 신월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골목기록가분들과 연구조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중심이 되더라도, 1차 성과물이 도출된 이후에는 지역 내 주민이 직접적으로 조사와 기록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판단하였다.

국내 구도심 지역의 특징적 도시구조로 '골목'을 고려해볼 수 있다. 과거 보행 중심이었던 시기에 형성된 자연 발생적 골목의 경우 지역의 변화를 가장 주도할 수 있는 공간계획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테스트베드 지역의 경우, 1970년대 후반, 철거민을 위한 집단거주지로 4m 이내의 동일한 형태의 격자형 골목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초기 계획된 골목으로 인해 주거공간의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골목이 지역의 변화에 가장 큰 제약조건이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될 수 있다. 이에 다른 기록화 사업과 유사한 형태가 아닌, 골목이 주가 되는 지역만의 특색 있는 기록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골목기록가' 리빙랩의 의미와 가치는 주민이 일련의 기록화 교육, 골목기록 실습, 리빙랩 운영에 이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신월 3동 주거공간의 특징중 하나인 '골목'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직접 또 주민의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 골목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있다. 골목기록가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거시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골목이라는 주민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또 구술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민 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일환으로 신월 3동 기록화 리빙랩을 중심으로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에 대한 전문가, 교육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식 및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신월 3동 주민 중 교육에 3개월 이상 참여한 8명의 결과와 심층면담 기록을 교육프로그램 결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 소속된 3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향후 주민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위한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형 리빙랩 운영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주민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위한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셋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목기록가 양성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양성과정 및 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의 효과를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문헌과 보고서를 통한 선행연구,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답사, 전문가 및 관계자 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인식조사를 위해서는 2회의 비대면 설문조사와 1회의 FGI기법을 활용한 소규모 심층면담조사가 진행되었다.

2. 주민참여형 리빙랩의 고찰

2.1 등장배경 및 정의

리빙랩은 초기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변화를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과거 도시개발은 단기간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주도형 하향식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 주도 하향식 도시개발은 사회, 문화적 삶의 발전이 주가 되기보다 물리적 환경의 발전을 중점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는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고 개발의 주체로 기능하지 못한다. 중앙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다 보니 개발된 지역들이 각각의 특색을 잃은 획일적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일자리 부족, 사회적 갈등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로 연결되거나, 국가의 지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겪는다. (최민주 · 이상호 · 조성수 · 정예진 · 조성운, 2020).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지역공동체 참여형 도시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을 되살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치를 표방하는 지역 주민이 주도의 상향식 발전이 강조되어 왓다. 이처럼 변화된 도시개발의 수요를 충족하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개발의 주체이자 의견 수렴의 플랫폼으로서 리빙랩의 역할을 강조한다(성지은 · 한규영 · 정서화, 2016).

리빙랩의 사전적 개념은 '일상생활의 실험실'로 본래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사용자 관찰 행위에 중점을 둔다(최민주 · 이상호 · 조성수 · 정예진 · 조성운, 2020). 리빙랩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초기 리빙랩이 제품 및 서비스 발전을 중심으로 나타난 반면, 2006년 유럽연합에서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 리빙랩 네트워킹 구성 이후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형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서 역할 또한 함께한다(옥진아 · 정효진, 2019). 리빙랩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리빙랩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아래에서부터 진행되는 상향식 발전 방식인 리빙랩은 소비자와 주체가 분리된 일방향적 정보 공유 발전 플랫폼이 아닌 주체가 곧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곧 주체가 되는 쌍방향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서 작동한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발 과정 전반에 참여함으로서 지역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

2.2 교육프로그램 사례

리빙랩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리빙랩의 사례로는 성대골 에너지리빙랩과 한동대학교 리빙랩 등이 있다. 먼저 성대골 에너지리빙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변화된 주민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성대골은 주민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 내 이벤트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다양한 에너지 실험 및 이벤트에 참여하고 워크숍, 전문가 강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성대골 에너지자립 전환 마을을 목표로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 서울시는 2012년 성대골을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을 지정함으로써 마을 내 에너지 실험이 본격화되었고 목표의 지속적 성취를 위한 경제적 자립구조 사업이 함께 추진되었다(성지은・한규영・정서화, 2016). 성대골 에너지 리빙랩은 기존의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주민 주도 리빙랩을 운영하여 에너지 전환 기술 선택부터 에너지 공급까지 전 과정에 거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우선시하고 전문가는 자문을 통해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성대골 리빙랩은 문제 발굴부터 최종 선택까지 주민 주도적 과정을 걸쳐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 에너지 전환에 그치지 않고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자립구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마을 중심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해 리빙랩의 활용성과 결속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다. 또한 실험을 통해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마을 단위를 넘어선 도시 단위의 확장 가능성을 보인다(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

한동대학교 리빙랩은 교내 학부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교육과 현장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직접 배운 내용을 토대로 현장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 리빙랩 형태를 실행하였다. 한동대학교 리빙랩은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전공 교수들이 학생들의 현장역량 강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성지은・송위진・정병걸・최창범・윤찬영・정서화・한규영, 2017). 이후 선정된 방안에 경우 지속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기관은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띈다(성지은・송위진・정병걸・최창범・윤찬영・정서화・한규영, 2017). 한동대학교 리빙랩은 학생 주도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실형 리빙랩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학생이들이며 전문 기관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그간 강의실에서 배우기만 했던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장 지역은 지역 구성원 주도의 지역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듯이 주민 참여형 리빙랩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되고 전문기관과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선에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3 현황 및 문제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회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국내 리빙랩의 사례로는 성남 시니어리빙랩, 성대골 에너지리빙랩, 양주 리빙랩 과제 공모전 등이 있었다. 성남 시니어 리빙랩은 고령화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인구 일자리 지원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니어 리빙랩은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거점으로 시니어 계급의 창업을 지원해 노인 빈곤률 상승이라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성대골 에너지리빙랩은 기술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한 연구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에너지리빙랩은 총 4개의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전문가 워크숍과 기술탐색을 통한 에너지 제품 개발 및 실험을 진행했다. 양주 리빙랩 과제 공모전은 주민 참여형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과제 수행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리빙랩 과제 공모전은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에 해당하는 리빙랩을 제안하고 이후 직접 운영을 해보는 과정을 거친다(옥진아・정효진, 2019).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리빙랩은 각각 서로 다른 운영 주체와 목적을 가짐에도 공통의 시사점을 가진다. 아직까지 국내 실정에 맞도록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형태라는 것이다. 사용자 중심의 리빙랩 운영은 국내 도입 초기 단계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태로(최민주・이상호・조성수・정예진・조성운, 2020) 기존에 진행되던 정부 주도 하향식 접근 방식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형태이며,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리빙랩을 운영하기보다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운영 방식을 따르고 있다. 사용자의 주체적 운영을 위해 사용자 주도형 상향식 접근 방식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 스스로 운영시 시작단계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의 노하우 공유와 같은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조치 또한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김민선・김필성・윤정민, 2020). 사용자들의 더욱 능동적 참여 태도와 다양한 주체간의 지속적 협력이 뒷받침될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리빙랩 운영이 보장될 것이다.

2.4 소결

아직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리빙랩은 과거 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관을 거점으로 진행되는 리빙랩이 대부분이다. 이에 사용자들은 여전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인데, 리빙랩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리빙랩 내부 이해관계자간의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박소임・장수정, 2021). 사용자가 단순히 소비자의 입장의 서서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 그치고 리빙랩 운영의 적극적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리빙랩 내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시작된 리빙랩은 이후 주체가 사용자로 변경된 후 안정적 운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리빙랩 운영을 위해 사용자 간의 리빙랩 운영 방침 지정, 리빙랩 운영에 대한 책임감 확보,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태도 등을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주민참여형 '골목기록가' 리빙랩 프로그램 개발

3.1 교육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주민참여형 기록화 리빙랩의 목적은 "골목기록가"를 양성하여, 그들 스스로 기록을 지속하고, 공간을 운영하며, 다음 기수의 골목기록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골목기록가는 신월3동의 총 3가지 리빙랩인 항공소음 저감 리빙랩, 기록화 리빙랩, 재해재난 안전 리빙랩을 운영할 주체로서 주민을 육성할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또한 골목기록가는 해당 교육에서 마을의 주요 체계를 골목으로 보고 골목을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기록해 가는 역할을 학습하였다. 골목기록가는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마을해설사와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개념과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

마을해설사와 골목기록가 모두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마을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해설사는 마을의 문화, 역사, 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개하고 알리는 '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골목기록가는 골목이라는 공간에 대한 물리적 기록물을 포함한 역사, 사회, 문화, 삶의 기록물을 발굴하여 기록하는 '기록'의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골목기록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리적 공간에 대한 실측하고 이를 도면화하거나 이미지화하여 기록물을 만드는 역할과 함께 주민들과의 면담 및 대화를 통해 골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사회/문화적 상황, 삶과 문화를 기록하는 구술기록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골목가 양성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증진하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변화를 겪고 있는 마을을 일정 기간마다 기록(촬영, 영상)함으로써 사라져가는 과거의 공간과 기억을 재해석할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해 가는 도시재생의 변화과정을 기록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형성해가는 역할을 포함하게 된다.

3.2 교육과정

골목기록가 프로그램은 1, 1.5, 2, 3단계의 구조로 개발되었으며, 2019년부터 구청과 협의를 거쳐 2020년 11월에 시작하여 총 8개월 동안 진행되었다(프로그램 구성은 부록 1 & 2참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목기록가 프로그램 1단계(2020.11-12)는 총 8차시로 기초 2차시, 기본 2차시, 심화 2차시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기초과정에서는 '골목기록가의 기초이론'과 '우리 마을 골목이 지닌 가치골목의 가치'에 대해, 기본과정에서는 '골목기록 수집 (Ⅰ)과 골목기록 수집(Ⅱ)에 대해, 심화과정에서는 수집된 골목기록을 편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으로 2차시 동안 학습하였다. 1.5단계(2021.1)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1단계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골목기록 수집 및 편집에 대한 실습교육과 더불어 '리빙랩'의 공간개선이 이루어졌다. 2단계(2021.2)는 1단계에서 선정된 골목기록가들과 연구팀이 함께 현장에서 기록화를 실습하는 과정으로 골목기록가가 기록한 결과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2단계는 리빙랩에서 주민 1인당 주 1회(1일 2시간)으로 연구팀과 진행하였다. 3단계(2021.3-2021.6)는 골목기록가들이 주체적으로 현장을 운영하는 과정으로 리빙랩에서 주민 1인당 주3회(1일 3시간)으로 운영되었으며, 3단계 종료 후에도 골목기록가들은 공모사업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리빙랩을 운영·기록하며,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계획하였다.[1)]

3.3 프로그램 타당도 검증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도시재생사업 경력 10년 이상의 교수 2인과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관련 전문성을 가진 교육학 박사 3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2)], 자문 내용은 프로그램의 배경/정의/필요성,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실효성/가치, 단계별 과정에 대한 의견, 골목기록가의 역할, 가치 확대 방안 등이다. 그 결과 다소 불분명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정확하게 확립하는 것, 골목기록가가 기록하는 내용의 범위가 기존의 범위에서 확대되어 마을 공간의 물리적 기록물을 포함한 역사, 사회, 문화, 삶의 기록물까지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양적평가만 계획되어 있던 교육과정 구성에서 주민의견 반영 필요를 위한 질적 평가 추가 실시, 주민들의 교육과정 결과물에 대한 양적 평가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평가 도입 고려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자문결과의 의견들을 모두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정 · 보완하였다.

Table 1. Reflect Expert Consultation Results

Contents	Expert Consultation Results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Background/ Definition/Need of Program	Reconsider record range / Segmentation of responsible areas by residents	Step-by-step role segmentation
Organization/ Effectiveness/Value of Programs	Objectives and course settings required	Establishing a goal
the Role and value	Case study Portfolio evaluation	Add case training to practice Portfolio evaluation through records of interviews, submission of assignments, etc.

4. 주민참여형 '골목기록가' 리빙랩 프로그램 효과 검증

4.1 연구방법 및 절차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

1) 골목기록가 1.5단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1단계에서 부족한 실습과정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방안으로써 추가 개발되었다. 1단계와 새로 구성된 1.5단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골목기록가의 면담은 2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실시되었다.
2) 2020.12-2021.1 사이에 대면 1회 / 비대면 1회 진행되었음

램 실시 전·후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및 마을변화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프로그램개발 및 진행 절차 중 면담/설문조사는 숭실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였다. (IRB No.SSU-202101-HR-298-1).

4.1.1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마을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Glynn(1981), Davidson and Cotter(1986), McMillan and Chavis(1986), Nasar and Julian(1995)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재구성한 Tartaglia(200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 요소는 장소애착 6문항,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 3문항, 사회적 유대 6문항의 총 1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Tartaglia(2006)의 연구에서 Cronbach' s Alpaha 값은 장소애착이 0.79,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 0.60, 사회적 유대 0.72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s Alpaha 값은 장소애착이 .82, 사회적 유대가 .76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욕구충족 및 상호영향의식에서는 .42로 다소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낮은 크론바흐 알파 값의 이유는 문항 수에 비해 적은 표본 수, 역채점인 경우와 문항 질문이 응답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나 애매하여 혼란을 일으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자의 일관성에 의한 문제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마을 변화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강신겸(2001)이 사용한 마을 변화 인식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하위 요인은 경제적 영향 인식 6문항, 사회·문화적 영향인식 7문항, 환경적 영향인식 5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1.2 자료 분석 방법

프로그램 진행은 2020년 11월 1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프로그램 실시, 면접 및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기초분석과 함께 프로그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비모수 검정의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on Rank Sum Test)을 실시하였다. 14명의 수료자 중 모니터링에 참여한 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다보니, 소수의견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과 제한점을 보완하고 프로그램 실행과정과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개별 점수 비교와 함께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얻은 질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4.1.3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월3동 주민 8인이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미성년 자녀수, 가족소득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여성이 87.5%로 여성 참여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평균연령은 45.25세(SD=5.37)이며, 학력은 대학재학/대학졸업이 각 3명(37.5%) 학력의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6명(75%)로 가장 높았으며 '동거가족 수'는 '없음' '2명', '5명'이 각 1명(12.5%)으로 가장 낮았으며 '3명'이 2명(25%), '4명'이 3명(37.5%)로 가장 높았다. '가족소득'은 '250만원~300만원', '300만원~400만원', '500만원~600만원', '600만원 이상'이 1명(12.5%)로 가장 낮았고 '150만원~200만원', '400만원~500만원'이 2명으로 가장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거주 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마을 거주기간은 '10~20년 미만'이 4명(50%), '10년 미만', '20~30년 미만'이 각 2명(25%) 순이었다. 거주 주택 형태는 '단독주태'과 '연립/다가구주택'이 각 3명(37.5%), '아파트'가 2명(25%) 순이었다. 거주 주택의 임대차 형태는 '자가'가 5명(62.5%)로 가장 많았고, '전세' 2명(25%), '기타(사택)'이 1명(12.5%) 순이었다. 상가/주택/토지/건물 소유 여부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 4명으로 절반씩 분포하였다.

Table 2.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8)

Factors	Categories	Frequency (persons)	%
Gender	Male	1	12.5
	Female	7	87.5
Age M : 45.25 (SD : 5.37)	35~39	1	12.5
	40~44	3	37.5
	45~49	1	12.5
	50~54	3	37.5
Academic background	High school graduation	3	37.5
	College student / Graduation	2	25
	University student / Graduation	3	37.5
Marital status	Marriage	6	75
	Single	1	12.5
	Divorce after marriage	1	12.5
Number of underage children	-	3	37.5
	1 person	1	12.5
	2 people	3	37.5
	3 people	1	12.5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	1	12.5
	1 person	0	0
	2 people	1	12.5
	3 people	2	25
	4 people	3	37.5
	5 people	1	12.5
Family income	1,500,000~2,000,000 won	2	25
	2,000,000~2,500,000 won	0	0
	2,500,000~3,000,000 won	1	12.5
	3,000,000~4,000,000 won	1	12.5
	4,000,000~5,000,000 won	2	25
	5,000,000~6,000,000 won	1	12.5

4.2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

4.2.1 프로그램 효과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변수인 지역공동체의식, 마을변화인식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사전, 사후 기술통계 및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coxon Rank Sum Test)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지역공동체 의식은 사전조사에서 M=3.49(SD=0.53)을 사후조사에서 M=3.62(SD=0.40)으로 평균점수가 증가하였으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1.101,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요인인 장소애착은 M=3.52(SD=0.57)에서 M=3.56(SD=0.50)로 나타났으며, 욕구 충족 및 상호영향의식은 M=3.42(SD=0.75)에서 M=3.70SD=0.38)로, 사회적 유대는 M=3.52(SD=0.48)에서 M=3.63(SD=0.49)로 증가하였다. 마을 변화 인식은 사전조사에서 M=3.42(SD=0.60)으로 사후조사에서는 M=3.62 SD=0.40)로 균점수가 증가하였으나, 윌콕슨 부호 순위 검증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z=-1.051, p>.293)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 요인인 경제적 변화는 M=3.40(SD=0.70)에서 M=3.65(SD=0.47)로, 사회문화적 변화는 M=3.50(SD=0.47)에서 M=3.65(SD=0.57)으로, 환경적 변화는 M=3.48(SD=0.70)에서 M=3.52(SD=0.77)로 증가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Residents' Perception of Community and Village Change before and after Education (N=8)

Factors	Prior Mean(SD)	Post Mean(SD)	Z	P
Sense of community	3.49(.53)	3.62(.40)	-1.101	.271
Place attachment	3.52(.57)	3.56(.50)		
Desire fulfillment and mutual impact consciousness	3.41(.75)	3.70(.38)		
Social bonds	3.52(.48)	3.63(.49)		
Recognition of Village Change	3.42(.60)	3.60(.58)	-1.051	.293
Economic change	3.40(.70)	3.65(.47)		
Sociocultural change	3.50(.47)	3.65(.57)		
Environmental changes	3.48(.70)	3.52(.77)		

4.2.2 연구참여자별 변화

신월3동 주민참여형 골목기록가 리빙랩 프로그램의 효과를 참여자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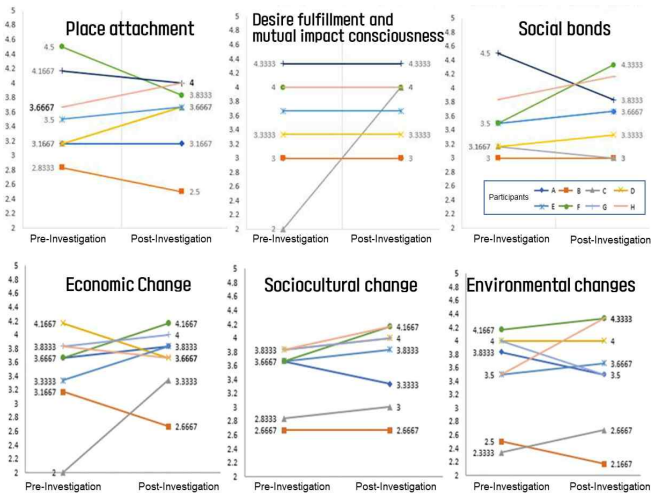

Figure 1. Changes in local community awareness before and after programs by participants

지역공동체의식의 하위 요인인 장소애착에 대한 응답 결과 참여자B, 참여자F, 참여자G를 제외하고는 참여자 모두 증가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욕구 충족 및 상호영향 의식의 결과, 참여자C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참여자C는 100%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사회적 유대에 대한 응답 결과, 참여자C와 참여자G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에 증가하였다. 마을 변화에 대한 하위 항목인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 참여자B, 참여자D, 참여자H를 제외하고는 사후 증가하였으며 사회 문화적 변화의 경우, 참여자A와 참여자B를 제외하고 사후에 증가하였다. 환경적 변화의 경우 참여자C, 참여자E, 참여자F, 참여자H는 증가한 반면, 참여자A, 참여자B, 참여자G는 감소, 참여자D는 사전 사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 사후 분석 결과 일부 측정 항목에서 교육프로그램 이후 교육 참여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석 및 심층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여기서 참여자 A, E, G는 과제 미제출 등으로 지속적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4.2.3 관계기관 분석 결과 및 시사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조사는 관계기관에 재직중인 3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5월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 약 2주간 수집되었다. 1명은 불성실한 응답으로 최종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5명(17.2%), '여성' 7명(24.1%), 무응답 17명(58.6%)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9세'가 1명(3.4%), '30~39' 세가 2명(6.9%), '40~49' 세가 6명(20.5%), '50~59세' 가 3명(10.2%), 무응답 17명(58.6%)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1.92세(SD=9.25)로 조사되었다. 관련업무 수행기과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가 8명(27.6%), '양천구청' 이 15명(51.7%), 무응답이 6명(20.7%)으로 조사되었고 소속부서는 '동네발전소' 1명(3.4%), '공동체 활성화' 5명(17.2%), '도시재생과' 18명(62%), '스마트 정보과' 2명(6.8%),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1명(3.4%), '양천구' 1명(3.4%), '없음' 1명(3.4%)로 조사되었다. 담당기간은 '6개월미만' 이 9명(30.9%), '6~12개월 미만' 이 8명(27.5%), '12~18개월 미만' 이 7명(24%), '18개월 이상' 이 1명(3.4%), 무응답이 4명(13.8%)로 조사되었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N=29)

Factors	Categories	Frequency (persons)	%
Gender	Male	5	17.2
	Female	7	24.1
	No response	17	58.6
Age	20~29	1	3.4
	30~39	2	6.9

M : 41.92 (SD : 9.25)	40~49	6	20.5
	50~59	3	10.2
	No response	17	58.6
Related Agencies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	8	27.6
	Yangcheon-gu Office	15	51.7
	No response	6	20.7
Affiliated department	Neighborhood Power Plant Co., Ltd.	1	3.4
	Community Revitalization Team	5	17.2
	Urban Regeneration Division	18	62
	Smart Information Division	2	6.8
	Secretary General	1	3.4
	Other departments	1	3.4
	No response	1	3.4
Period of responsibility	Less than 6 months	9	30.9
	More than 6 months and less than 12 months	8	27.5
	More than 12 months and less than 18 months	7	24.0
	More than 18 months	1	3.4
	No response	4	13.8

조사 결과 <표5>와 같이 신월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 아는 정도는 평균 3.41점으로 나타나 설문 참여자들이 대부분 해당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삼마을의 골목에 대한 느낌을 선호도, 이용도, 재방문 의지의 세 개 항목으로 측정한 결과 선호도, 재방문 의지, 청결도, 이용도 순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선호도에서는 평균 3.00점으로 보통 정도, 재방문 의지에서는 평균 2.96점으로 보통 조금 이하의 결과, 청결도에서는 평균 2.82로 보통 이하의 결과, 이용도에서는 평균 2.45로 '불편하다'와 '보통이다'의 중간 정도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선호도와 재방문 의지, 청결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이용도는 보통 이하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골목에 대한 변화와 가치에 대한 응답 결과, 가치는 평균 3.55점으로, 변화의 필요성에서는 평균 3.38점으로, 골목기록가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지식에서는 평균 3.03점으로, 골목기록가의 필요성은 평균 2.59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신월 3동 골목의 가치, 변화의 필요성, 골목기록가에 대한 사전지식, 골목기록의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평균 이상의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주민이 골목기록가로서 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 협력의지, 기대치, 활동영역, 선호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협력의지에서 평균 4.14점으로 '좋다' 이상의 결과, 기대치에서 평균 4.07점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결과, 활동역역에서 평균 4.04점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 선호도에서 평균 4.00점으로 '좋다'의 결과가 나타나 해당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by Question (N=29)

Factors		Average	Standard deviatio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3.41	1.12
The feeling of the current 'alley' in Urban Regeneration areas	Preference	3.00	0.53
	Utilization	2.45	0.74
	Willingness to revisit	2.96	0.64
	Cleanliness	2.82	0.72
The idea of 'alley' within Urban Regeneration areas	Value	3.55	0.74
	Necessity	3.38	0.90
Preliminary knowledge of the role of alley recorders and the background of their appearance		3.03	1.21
Necessity of Alley Recorder*(3-point scale)		2.59	0.57
Opinion on residents' activities as alley recorders	Preference	**4.00**	0.67
	Expectations	**4.07**	0.54
	Area of activity	**4.04**	0.51
	Willingness to cooperate	**4.14**	0.52

* Backscoring questions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골목에 대해 생각하는 분위기에 대한 응답 결과 '옛스럽다(58.6%)', '추억이 깃든다(41.4%)', '단순하다(34.5%)', '무미건조하다(2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고풍스럽다', '현대적이다', '무섭다', '경쾌하다', '안전하다', '불행하다', '슬프다'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신삼마을(신월3동 마을) 골목 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은 '주차공간 마련(79.3%)', '골목포장 디자인 개선(27.6%)', '골목안 쓰레기 정비(20.7%)' 순서 로 높게 나타나, '주차공간 마련'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골목기록가(주민)의 향후 리빙랩 운영시 우려점에 대한 응답 결과는 '지원비(연계사업/교육/지원금) 중단 이후의 운영(51.7%)', '리빙랩 운영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변질 (소수모임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 등)(37.9%)', '골목기록가의 지속적인 육성과 교육(34.5%)', '결과물에 대한 질(Quality)와 양(Quantity)(3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비(연계사업/교육/지원금) 중단 이후의 운영'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지원비 중단 이후의 리빙랩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기록가의 타지역으로 성장을 위한 관계기관에서의 역할에 대한 응답은 '전문 교육 및 지속적인 양성(55.2%)', '적극적인 홍보(관계기관의 SNS에 게시/뉴스/신문 등..)(24.1%)', '지원비(경제적) 지원(20.7%)' 순으로 높았으며 '전문 교육 및 지속적인 양성'이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상의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에서는 골목기록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선호도, 활동영역, 기대치, 협력의지의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빙랩 운영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는 지원비 중단 이후의 운영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골목기록가의 타지역으로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해 전문 교육 및 지속적인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6. Frequency Analysis by Question (N=29)

Categories	Frequency	%
The atmosphere of 'Alley' in Sinwol 3-dong urban regeneration area. (Multiple Responses)		
The alley is old-fashioned.	17	**58.6**
Memories come to mind in the alley.	12	**41.4**
The alley is antique.	0	0
The alley is modern.	0	0
The alley is futuristic.	1	3.4
The alley is dark.	6	**20.7**
The alley is gloomy.(침울하다)	4	13.8
The alley is scary.	0	0
The alley is gloomy.(음침하다)	3	10.3
The alley is cold.	2	6.9
The alley is bright.	1	3.4
The alley is cheerful.	0	0
The alley is safe.	0	0
The alley is lively.	1	3.4
The alley is warm.	5	**17.2**
The alley is busy.	3	10.3
The alley is dull.	7	**24.1**
The alley is unhappy.	0	0
The alley is simple.	10	**34.5**
The alley is sad.	0	0
The alley is leisurely.	4	13.8
The alley is fun.	1	3.4
I am pleased in the alley.	1	3.4
The alley is colorful.	0	0
I am happy in the alley.	0	0
Most urgent improvements to increase value (Multiple Responses)		
Planting in a small space	1	3.4
Planting plants for each house	0	0
Garbage maintenance in the alley	6	**20.7**
Noise Blocking	4	13.8
Drainage Maintenance	2	6.9
Signboards, signage maintenance	1	3.4
Town bus service	1	3.4
Bicycle cradle installation	1	3.4
Preparation of parking spaces	23	**79.3**
Building design improvement	5	**17.2**
Improving fence design	3	10.3
Improvement of Alley Pavement Design	8	**27.6**
Comfort treatment of household waste	5	**17.2**
Creating green in an alley	3	10.3
Induce outsiders & visitors	3	10.3
Keep order in the alley	3	10.3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alley issues	5	**17.2**
Administrative Maintenance/Management	1	3.4
Other matters	0	0
Concerns about the operation of Living Lab by Alley Recorder (Residents) (Multiple Responses)		
Continued education of alley recorders	10	**34.5**
Problems due to differences in the competence	6	20.7
Quality and quantity	9	**31.0**
Use for other purposes (use for minority purposes, etc.)	11	**37.9**
Operation after suspension of support expenses (linked projects/education/support funds)	15	**51.7**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residents.	7	24.1
Limitations of support from relevant departments	1	3.4
Other matters	0	0
Role of the relevant institution for the growth of the alley recorders in other regions		
Economic support	6	**20.7**
Active promotion (Posting of SNS/News/Newspapers, etc.) of related agencies	7	**24.1**
Collecting opinions and conducting consciousness surveys of residents	4	13.8
Professional and continuous training	16	**55.2**
Other matters	0	0

4.3 골목기록가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개선방향

본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5단계에 진입한 골목기록가 6인과 도시재생센터 코디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분석 결과, 다음의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1) 교육과정 및 업무에 대한 부담감
: "왜 다 배워야 하지?"

교육 참여자들은 교육과정 및 업무에 대한 여러 부담감을 표현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1단계 교육에서 진행된 건축물의 측정과 관련된 학습 내용이었다.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 대한 부담으로는 면담참여자들이 기억이나 추억에 대한 구술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불만을 토로하는 기록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면담에 참여한 주민들의 면담 과정 및 그 결과물이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중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연구 윤리적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B: 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보다는 그냥 이게 면담하고 글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리를 해서 하는 거까지는 다 이해했는데, '우리가 왜 건축적인 거까지 다 배워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긴 했었어요.

(참여자 B 면담 자료 중)

참여자 B: 마을에 영향은 우선 골목 이거를 했을 때 여기 이 동네에 우물이 있었대요. 그런 얘기를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점점 들을 수 있는 관계는 좋긴 한데 그런 분이 소음만 얘기 하신데요. 골목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소음에 대해 얘기 하시다가 우물에 관한 얘기는 다른 분이 얘기해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왠지 허탈한 느낌? 그래서 5년 됐을 때 내 인간관계만 쌓았을 것 같아요. *(참여자 B 면담 자료 중)*

참여자 F: 1단계는...꼭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법이 중간에 모바일로 바뀌면서 조금 소통이...다들 처음 하는 거니까. 아니 저도 이전에 많이 하진 않았어요. 몇 번 해본 경험이 좀 더 있을 뿐이긴 한데 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내용적인 면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실습을 한 달 이제 2회에서 4회로 진행을 했었는데 좀...저는 집중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참여자 F 면담 자료 중)*

참여자 F: 일반 주민, 조용하게 자기 생활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냥 큰 골목에 대한 추억들이 너무 적으시더라고요. '그냥 나 먹고살기 바빴고 그냥 여기 골목은 큰 변화가 없는 골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억을 할 만한 본인 생각이 그런 기억들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의견도 그 안에서 작은 거라도 찾아내서 기록해서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힘들었고. 반면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거리는 많으세요. 많긴 한데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강하게 박혀있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마을의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들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들이...(면담에 또 반영 될까봐...)그냥... 그런식으로도 될 것 같으니까...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그니까 일부 소수의 생각이 이 마을 전체의 생각처럼 기록화 될까봐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됐던 거 같아요... *(참여자 F 면담 자료 중)*

(2)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회의
"도시재생 싫어해"

면담자 B와 E의 경우 주민들과의 실제 면담을 실시한 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이 오히려 증가한 사례이다. 이는 면담 중 마을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거나 마을주민들의 부정적 견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이들은 프로그램 사후 평가의 공동체 의식과 마을의 변화에 대한 일부 항목에서 기대감이 감소하거나 마을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형 리빙랩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참여자들이 주민들과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나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보여준다.

참여자 E: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을 할 때 도시재생의 골목기록가, 골목 기록하는게 있는데 인터뷰 좀 해달라고....그랬더니 "난 도시재생 싫어해" 이래서 시장에 이미지가 엄청 안 좋은 게 도시재생... *(참여자 E 면담 자료 중)*

참여자 B: 어르신들한테 면담할 때요, 저도 모르게 주입이 되는 것 같아요. 불만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거 하면서 '어? 나는 희망적이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점점 현실을 안다'고 하게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점점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아..내가 잘못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거죠..(중략) 네 맨 처음에는 그렇게 다 점점 희망적으로 갔었는데 이게 면담하고서 해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참여자 B 면담 자료 중)*

참여자 D: 근데 이 면담하고 하면서도 저는 이게 지역이 거시적으로 지역이 바뀌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차례차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결국은 여기 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역이 바뀌는 거를 원하기보다 뭔가 더 내 거가 바뀌는 걸 생각해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이 떨어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자면, 도시재생?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하의 변화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굉장히 저는 헤맸었어요. *(참여자 D 면담 자료 중)*

참여자 F: 실제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대부분이 기대치가 너무 낮았고. 그리고 또 여기가 특성이 좀 여러 주민들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로 모아져서 같이 이끌고 가면 참 좋겠지만 너무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 사람들을 끌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한 게 지금 항목이 낮았다?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했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낮게 책정한 거 같아요... *(참여자 F 면담 자료 중)*

(3) 마을에 변화에 대한 기대 증가
: "변화가 없을까 참 안타깝다"

교육참여자들은 교육과정에서 마을의 변화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증가하기도 했으며(참여자 C), 그동안 마을

에서 포기하거나 무관심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마을의 변화에 대한 기대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참여자 D)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C: 여기에 대한 게 골목이다 보니 요새는 여기에 집착이 더 많은 거야 아무래도. 요 수위가 변했지. 그때 내 고향 영등포에다가 그 다음에 3위였거든 여기가. 그 다음은 부천, 그 부천은 내가 그 노인네들 전체적인 봉사를 총괄을 맡아서 하니까 좀 신경을 더 썼는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요 내가 거기를 일절. 어쩌다 이제 부천의 시장이 회의 오라 하면 오는 거고. 회의도 뭐 별 볼일 없어 특별한 거, 밥이나 먹고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위가 변한거지. *(참여자C 면담자료 중)*

참여자 D: 왜 이러고 있어야만 할까! 전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다고 하면..답답함? 학교 활동하고 이러면서 포기했던 이런 부분들 이 지역 사람들한테 느끼는 감정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이제... '그래...그러고 살어...' 이랬다면은, 지금은 '왜 이러고 있어야만 할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저이가 제대를 하면 어디에 살까 하면서 물어볼 때 여기 살아도 상관없지만 굳이 여기 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머물러서라도 좋을텐데 그런 생각을 조금...
(참여자 D 면담 자료 중)

(4) 대인 관계 증가 및 개인 성장
"본인의 마음을 보는 시간"

교육참여자들은 주민들과 면담 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로 나타난 마을의 골목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참여자 E: 저는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짜 바깥으로만 다녀가지고, 이제 은의 쌤이 여기와서 제가 여기를 안거예요. 우리 골목도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저보다 골목을 벌써 다 탐방을 해가지고, 제가 '헉 나보다 더 잘 아네'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여기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된 게 그때는...뭐였지...골목에 관한 거를 전혀 생각 안하고 이렇게 탐방을 갔다 참. 도시재생이 발전된 곳을 두 군데를 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니까 재건축이 안되더라도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아 진짜 이거 많이 필요하다 하하. 저는 만약에 뭔가 핵심적으로 되면은 발전될 것 같아요. *(참여자E 면담자료 중)*

참여자 E: 첫 경험이니까 해보라 해서 한건데, 그때 '아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구나' 일단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한 건데 '아 싫을 때도 이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하하. *(참여자 E 면담 자료 중)*

참여자 F: 이걸 특히 제가 신청한 이유가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게 전해야 되는 거죠 힘듦이 같이.(하하) 그러니까 일적인 면에서는 만나서 좋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힘듦을 같이 좀 공감하는 그런 건 좋았지만, 뭔가를 지원 해주고 싶은데 항상 뭐 고민이거든요. 한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 (중략) 충분히 신삼마을 골목의 특성에 대해 잘 알겠다 보니까 골목의 어떤 식으로든 변화된 가치가 있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보는 시간인 거 같아요. 그게 변화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참여자 F 면담 자료 중)*

(5) 리빙랩 운영 주체로서의 전략 제안
"이제 다양성을"

교육참여자들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이 누적되면서 리빙랩 운영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마을 운영진의 연령대 구성에 대한 계획, 향후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육참여자들의 주도적인 운영 계획안은 리빙랩 운영이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C: 여기 노인네들이 도시재생이라면 부정적인게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3월 달부터는 좀 다양성 있게 사람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주에 먼저 좀 하려고 그러다가 나만 잘났다고 세 사람 할 수 없어서 두 사람하고 이제 세 번째는 3월 달. 사람은 여기서 애 시집보내고 조금 살고 하는 사람 그리고 쉰 중반 이제 그런 사람을 택했어 내가 일부러 이제 다양성을. *(참여자 C 면담 자료 중)*

4.4 소결

본 연구는 마을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리빙랩을 운영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참여자들의 지역공동체의식과 마을의 변화에 대한 의식 변화를 양적 측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질적 분석을 통해 교육참여자들의 교육적 성장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계기관 설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및 활동이 증가하면서 컴퓨터 등 스마트 매체 활용 능력 및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추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내용구성을 조정 운영함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여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했다. 교육 참여자들의 경우 비대면 실습 제한과 함께, 증가한 컴퓨터 매체 이용으로 1단계로부터 실습이 동반된 1.5단계 진입 과정에서 지속적인 참여에 대해 부담과 갈등을 느끼기도 하였다. 둘째, 코로나 19로 인한 신월3동 주민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거나 위축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마을 기록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협조 및 협력 의지를 높이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육과정에서의 탈락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이 단계별로 심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탈락한 인원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탈락 인원의 조건과 강・약점을 파악하여 해당 인력이 자신에게 적합한 마을공동체의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개발은 개선 방향을 적용 수정하는 순환적인 과정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추후 프로그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가변적이므로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시기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주민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월3동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 마을의 기록화 리빙랩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의 참여가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과 마을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실습과정을 통해 양성된 골목기록가가 리빙랩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위한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문가 및 교육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타당도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 실시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실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였으며, 실증 대상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30인의 설문 조사를 통해 골목기록가 양성과정의 필요성 및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요건들에 대한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출된 골목기록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을 위해 설문, 인터뷰, 관찰 등의 다방면의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형 '골목기록가' 리빙랩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대학의 콘텐츠가 단편적이거나 도시재생활성화와 연계선 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골목기록가』의 경우 역사성 및 구술성의 의미를 창출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과 문제해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주민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기존 도시재생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골목기록가는 마을의 주요 사건, 상황, 문화 등을 알고 설명하는 기존 마을 해설가와 차별화된 역할을 부여받으며, 그 역할이 단편적인 영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목의 구조적인 측정과 더불어 구술 기록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골목기록가" 의 역할이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 또한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구도심 지역의 도시구조의 특징을 특화하여 개발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핵심 영역이며, 신월3동 마을의 차별화된 골목이 갖는 의미를 잘 발굴하여 '골목 기록가' 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주민참여형 리빙랩 운영 주체로 교육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는 지금까지 주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리빙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 왔던 국내외 사례와 차별화되어, 주민이 주체적인 교육적 성장의 장으로서의 리빙랩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역량을 증진하는 인문, 교육, 사회적 리빙랩의 특징과 경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골목기록가 리빙랩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은 마을의 구성원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변모하는 지역 사회의 역사, 문화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가적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연대, 그리고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이웃, 동네의 삶이 가치 있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을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순환되는 모델을 보여주어, 리빙랩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도시재생사업지에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 간의 연대, 소통 그리고 협력을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하는 지속가능한 리빙랩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했다는 측변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주민의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며 마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골목기록가가 실제적인 리빙랩 운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자 및 주체가 되어가는 성장과정을 보여주었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이었고, 수료 이후 선정된 일부 주민을 운영자 및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는 과정이었기에 연구대상자 수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최근 마을기록단, 공간기록단 등 주민을 기록주체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기에, 유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연구로서 유의미하다고 사료된다.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골목 기록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주체인 연구팀이 떠나더라도 자발적·지속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ae, S. (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on Community Consciousness of Local Residents in Seoul. Dongguk University, Ph.D. thesis
2. Choi, M., Lee, S., Cho, S., Jeong, A., & Cho, S. (2020). The Living Lab Model of Smart City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Association,* 20(4), 284-294.
3. Davidson, W. B., & Cotter, P. R. (1986). Measurement of sense of community within the sphere of City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6(7), 608-619.
4. Glynn, T. J. (1981).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Measurement and application. *Human relations*, 34(9), 789-818.
5. Jeong, Y., Jeong, S., & Kang, S. (2017). The impact of community attachment on tourism development in urban tourism. *Tourism Research Journal*, 31(7). 21-38.
6. Jung, M., Kim, S., Sung, J., & Oh, S. (2020). Challenges of an Innovation Platform to Overcome Regional Crisis and New Growth. *STEPI Insight*, (), 1-30.
7. Ju, K. (2020). The Derivation of Implications of Living Labs Operation through Successful Case Analysis of Domestic Living Labs. *Journal of Self-Administration of Korea*. 34(3). 293-313.
8. Kang, S. (2001). The impact of community attachment on the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9. Kim, E. (2015). A study on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building on the social well-being of the participa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ense of community. Soongsil University, Ph.D. thesis
10. Kim, H. (2012). Post Occupant Evalu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Design - Focused on the Cases of Seoul -, 28(6). 65-74.
11. Kim, J., & Hwang, K. (2011). Effectiveness in Citizen's Empowerment of Urban Planning Academy Program - Focused on Green Gyeonggi 21 Urban Planning Academy Program, Urba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Facilities Association*, 12(5), 5-18.
12. Kim, J., Lee, J., & Hwang, K. (2011). A Case Study on 'Learning Program of Academy of Urban Planning' for Citizen's Empowerment in Public Facilities Planning Process - Focused on the 2009 Year 'Learning Program of Academy of Urban Planning' in Capital Area. Urba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Facilities Association*, 12(4), 105-125.
13. Kim, M., Kim, P., & Yoon, J. (2020).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Industrial Innovation Platform and Living Lab. ie Magazine, 27(2), 38-45.
14. Kim, S., Kim, S., & Shin, W. (2019). Types of participants' perceptions of village-building. *Social Economy and Policy Studies*. 9(4). 147-172.
15. Lee, J. (2017). The Influence of Participants' experience of Community Building Project on their Evaluation perception. *Social Welfare in Korea*. 61, 29-51.
16.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17. Nasar, J. L., & Julian, D. A. (1995).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 the neighborhood.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2), 178-184.
18. Park, D. (2009). Determinants Affecting Residents' Community Attachment in Rural Tourism Development. *The Korean Society for Social Life Science*. 20(2), 247-262.
19. Park, S.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Competence in Neighborhood Regene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 Park, S., & Jang, S. (2020). A Study on Performance Indicators of Resident Participatory Smart City Living Lab: Focusing on An Empirical Case of Living Lap in Hwajeong 2-dong, Goyang City. *Korea Comparative Government Journal*. 24(4). 8-110.
21. Park, S., & Jang, S. (2021). Case study and performance analysis of citizen-participated public-led living lab for community problem res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Architecture*, 21(1), 89-97.
22. Seong, J., Jeong, S., & Han, K. (2018).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Living Lab in the Social Problem Solv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Research on Science and Technology*, 18(1), 177-217.
23. Sung, J., Park, I. (2016). Living Lab as a venue for system conversion experiments. *Journal of Technological Innovation*, 19(1), 1-28.
24. Shim, H.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Village Creation on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Dongg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in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25. Sun, H.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sident's Capacity of Citizen Autonomy Through the Community Planning Process. Sungkonghoe University, Master's thesis
26. Tartaglia, S. (2006). A preliminary study for a new model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1), 25-36.
27. Yoo, H., & Yang, J. (2021). The Education Program of the Village Documenting Group for Residents' Participatory Recordings Project.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7(7), 97-106.

(Received Aug. 4 2021 Revised Aug. 30 2021 Accepted Oct. 23 2021)